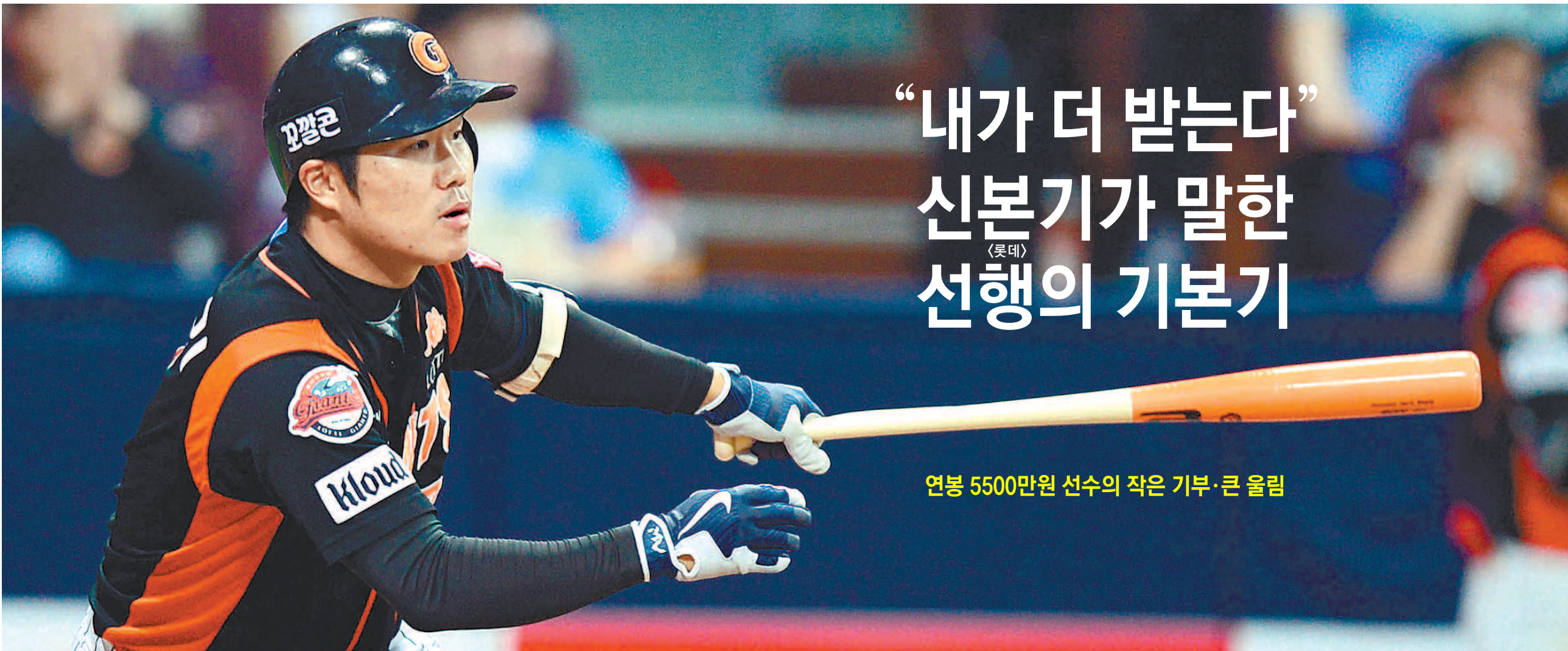




“내가 더 받는다” 신본기가 말한 (롯데) 선행의 기본기

연봉 5500만원 선수의 작은 기부·큰 울림

‘방망이 든 천사’ 롯데 신본기는 최근 꾸준한 선행이 알려지면서 팬들로부터 많은 박수와 응원을 받았다. 많지 않은 연봉에도 베풀 줄 아는 그의 선행철학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그러나 그는 “내가 얻은 것이 오히려 더 많다”며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스포츠동아DB

Mr. 베이스볼

행복의 가치는 소명에 있다. 즉,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아는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 롯데 내야수 신본기(28)는 아주 탁월한 야구선수는 아직 아니다. 그러나 프로로서의 품격만큼은 이미 특별하다. 선한 사람의 생각이 그렇듯, 무엇을 받을까가 아니라 무엇을 줄 수 있을까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 있다. 신본기의 선행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그런 마음을 지닐 수 있었는지, 그 계기를 듣고 싶었다. 역설적이게도 그 과정에서 신본기는 “오히려 내가 많은 것을 받았다”고 말한다.

원래 한 달에 한 번 수녀원 찾아가 봉사활동 시즌 중이라 못 가는 대신 카드 건넸다 알려져 예비신부도 봉사하다 만나…12월24일 결혼 나중에 재단 만들어 어려운 선수들 도울 것 그게 내게 많은 걸 준 야구에 대한 작은 보답

●“복귀 첫째 롯데의 가을야구, 설렌다”
-군(경찰청) 제대 후 첫 시즌이다.
“다시 사직구장에서 야구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다. 팀 성적도 포스트시즌이 가까워지니까 설렌다. 개인적으로는 복귀해서 초반 성적이 안 좋았고, 2군도 다녀왔다. 여름에 잠시 좋았다가 지금 다시 주춤하고 있다. 준비한 것에 비해서 원하던 모습을 찾지 못해 아쉽다. 그래도 후반기 중요한 시기에 팀에 조금이나마 보탬 된 것 같다. 아직 많이 부족하다. 배울 것이 더 많다. 못해서 속상할 때도 있지만 더 많이 준비 해야겠다는 생각이다.”
-수비형 선수 이미지가 강하다. 타격 스트레스가 큰 편인가?
“공격에서 약한 것은 사실이다. 차라리 계속 못친다고 생각하면 (타격에 관한) 가능성 자체를 낮게 잡아 마음이 덜 쓰일 텐데, 지난해와 올해에 두 달 정도 좋은 성적을 보였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놓지 않는다.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마음이 복잡하다.”
-공격은 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주위에서는 ‘수비만 잘하면 된다’고 말씀해주시는데 2할 2~3푼대 타율로는 주전이 어렵다. 그럼에도 꾸준히 기회주시는 조원우 감독님께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이 늘 있다.”

●꿈을 현실로 만든 ‘롯데 자이언츠 키드(Kid)’
신본기는 6살 때, 사직구장에 처음 갔다. 야구장 잔디를 보는 순간, 몸 안에서 ‘하고 싶다’는 마음이 일었다.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자 생각은 변치 않았다. 부모님한테 얘기했다. 초등학교 2학

년 때였다. 어리지만 허투루 말을 꺼내지 않는 외아들의 성격을 잘 아는 부모님들은 별 말 없이 허락하였다. 아버지는 조용히 아들의 전학 수속을 밟아줬다. 야구부 있는 학교를 찾아준 것이다.

~‘롯데 키드’로서 시작한 야구, 막상 해보니 이상과 현실은 달랐을 텐데.
“어린 나이임에도 ‘운동이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이다.’ ‘힘든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은 있었다. 당시 아버지 사업(지금은 전통 한과 원료를 만드는 공장 운영)의 부침이 있어서 어렵게 운동을 한 편이었다.”
-신인 드래프트에서 1/9의 확률을 뚫고 원하던 팀 롯데의 지명을 받았다. 신기한 일이다.
“고등학교 졸업 때 프로로 가지 못했다. 당시 스카우트 분이 대학에 가서 열심히 하면 좋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 주셨다. 그러나 막상 대학 졸업 때 신인 드래프트가 다가오자 롯데에서 별 말씀이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른 픽(2라운드)이 될 줄 생각 못했다. 기분이 납달랐던, 야구하기 잘했다고 실감한 날로 기억된다.”
-롯데가 아닌 다른 팀의 지명을 받을 수도 있었다.
“드래프트 당시에는 롯데에서 뛰고 싶다는 생각까지 할 여유는 없었다. 어디라도 지명을 해주기를 원했는데 롯데에서 해주니까 꿈 같았다. 현실 이상의 감격이었다.”
-롯데 유니폼을 처음 받았을 때 느낌은?
“상동(롯데 2군 연습장)에서 처음 받았다. 유니폼이 약간 뒤틀렸던 느낌이었다. 신기해서 사진도 찍고, 그랬다.(웃음)”
-부모님의 감회도 남다르셨을텐데.

“부산에 남았고, 가고 싶었던 팀에 갔으니 좋아하셨다. 지금까지도 집에서 같이 산다. 부모님이 차려주신 밥 먹었는데, 올 시즌 후 결혼하면 분가하게 된다.”
-아버지는 야구에 대해 말씀하시나?
“일단 야구장에 잘 안 오신다. 부담 느낄까봐 그런지 야구 애기가 집에서는 별로 없다. 절대 관심 없어서 그러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거나 잘하다가 못하면 아버지가 한마디 해주신다. ‘지금 롯데에서 뛰는 것이 어디냐,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좋은 영향력 주는 선수 되고 싶어”
신본기는 야구를 하는 동안, 아버지와 얘기한 다짐이 하나 있다. 나중에 재단을 만들어 실력은 있는데 형편이 어려운 선수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그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은 그것이 지금까지 많은 것을 건네준 야구를 향한 작은 보답이라고 믿는다.

-원손이 하는 일, 오른 손 모르게 해도 알려지는 법이더라. 5500만원 연봉 선수의 소액기부에서 사회적 울림이 컸던 이유는 꾸준함에서 진정성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을 것 같다.
“크게 한 것도 없는데 선행이라고 나오니까 좀 부담스럽다. 원래 한 달에 한 번 직접 (수녀원을) 찾아가 봉사활동 하는 것이다. 시즌 중이라 못나가서 아이들 맛있는 것이라도 한번 사주고 싶어서 했던 것이 알려졌다. 예비 신부와 매달 봉사를 같이 간다. 이번엔 못 가는 대신 카드를 건넸는데 나중에 이렇게 커졌다. (지금 생각해도

그 정도로) 칭찬 받을 일은 아니었던 것 같다.”
-의도치 않게 알려진 뒤 인터뷰를 계속 고사했다.
“아이들한테 미안했다. 직접 못 찾아가서 미안한 마음이 더 크다.”
-12월 24일 결혼을 한다고 들었다. 예비 신부도 봉사를 통해 만났다고 하던데.
“처음에 팬과 같이 봉사활동을 했다. 처음에는 청소 도와주고 그런 것이라 생각했는데 막상 가보니 같이 놀아주고, 아빠와 같은 역할이 필요하더라. 팬 분들 중 한 분이 지금 예비신부의 언니였다. 언니분이 친구처럼 지내보라고 소개해줬다. 이름은 신현정이고, 나이는 동갑이다.”
-감성이 잘 맞겠네.
“나보다 더하다(웃음). 봉사하는 부분에서 오히려 내가 느끼는 것이 많다.”
-배울면 무엇이 얻어지는 기본인가?
“아이들 보고 있으면 나를 돌아볼 수 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실감한다. 또 많은 사람들한테서 좋은 에너지를 오히려 내가 받는다. 같이 해주시는 후원자 분들께 늘 감사하다.”

신본기의 인생 목표는 롯데 선수로서 야구를 잘하는 것이다. 야구를 잘함으로써 좋은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주고 싶다. “IMF 시절에 박찬호, 박세리 선수 보며 국민들이 용기를 얻었다. 내가 그 정도 영향력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는 한 가지 일 열심히 하는 야구선수로서 힘을 줄 수 있는 선수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껏 솔한 인터뷰를 해왔지만 대화가 끝나고, 그가 남긴 부탁도 처음 들어보는 신선함이었다. “작게 써주세요.” 김영준 기자 galzby@donga.com

8년 만에 20승도 못한 사이영상 투수 나오나



정재우 전문기자의
MLB Tracker

NL-만루포 허용 커쇼, 사실상 20승 좌절
AL-클루버 17승 선두…세일 300K 주목

메이저리그의 치열했던 여름이 저물어가고 있다.

각 지구 우승팀이 속속 가려지고 있다. 아메리칸리그(AL)의 클리블랜드(중부)와 휴스턴(서부), 내셔널리그(NL)의 워싱턴(동부) 등 3개 팀은 지구 우승을 확정했다.

이제 서서히 개인 타이틀의 향방에도 눈길이 쏠린다. 그 중 하나는 각 리그 최고 투수들이 펼치는 사이영상 경쟁이다.

특히 올해는 2009년 이후 8년 만에 20승 투수가 사라질 분위기여서 방어율과 탈삼진이 한층 더 중요해졌다.

아시아야구선수권 최종 엔트리 확정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19일 제28회 아시아야구선수권대회에 나설 대표팀 최종 엔트리를 발표했다. 허세환(인하대)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투수 10명, 포수 3명, 내야수

●AL은 클루버-세일의 2파전

AL에선 클리블랜드 코리 클루버(31)와 보스턴 크리스 세일(28)이 유력 후보다. 19일(한국 시간)까지 클루버는 27경기(191.2이닝)에서 17승4패, 방어율 2.35를 올렸다. 다승, 방어율 모두 1위다. 세일은 30경기(201.1이닝)에서 16승7패, 방어율 2.86을 기록 중이다. 다승, 방어율 모두 클루버에 이어 2위다.

그러나 탈삼진에선 세일이 287개로 1위, 클루버가 252개로 2위다. 세일은 올 시즌 8경기 연속으로 10개 이상의 삼진을 잡았다. 1999년 보스턴 시절의 페드로 마르티네스, 2015년 시카고 화이트삭스 소속일 당시 자신이 세운 기록과 타이다.

8월 이후 부진한 세일이 개인 첫 사이영상의 영예를 안을지, 반대로 후반기 들어 불타오르고 있는 클루버가 2014년에 이어 2번째로 리그 최강의 에이스로 공인받을까 궁금하다. 남은 선발 등판 기회에서 세일이 300탈삼진으로 반격할 수 있을지 흥미롭다.

●NL은 커쇼-그레인키-슈어저의 3파전

19일 LA 다저스 클레이튼 커쇼(29)가 필라델피아전에서 개인통산 첫 만루홈런을 허용한 끝에 사실상 20승 도전이 좌절되면서 NL은 좀 복잡해졌다. 커쇼는 이 경기까지 포함해 세 차례 가랑선발등판이 가능했다. 그러나 4패째(17승·방어율 2.20)를 안았다. 하리 부상으로 1개월 넘게 쉬어 투쿠아닝(163.0)과 탈삼진(194개)에선 경쟁자들에게 제법 밀리기 때문에 20승이 필요했다. 애리조나 잭 그레인키(34)와 워싱턴 맥스 슈어저(33)가 위협적이다. 그레인키는 30경기(194.1이닝)에서 17승6패, 방어율 2.87(6위), 208탈삼진(3위)을 기록 중이다. 슈어저의 성적은 28경기(184.1이닝)에서 14승6패, 방어율 2.59(2위), 246탈삼진(1위)이다.

그레인키는 또 커쇼, 잭 데이비스(밀워키)와 함께 다승 공동 1위에 올라있다. 꾸준히 방어율 1위를 달려온 커쇼는 통산 4번째, 그레인키는 NL에선 최초, 슈어저는 2년 연속 사이영상 수상을 노리고 있다.

jace@donga.com

다. 이번 대회는 10월 2일부터 8일까지 대만 뉴 타이베이에서 개최된다. 8개국이 참가하며 예선 라운드와 본선 라운드 성적을 합산해 종합 성적 1, 2위 팀이 결승전을 치러 우승팀을 가린다.

삼성 마운드, 10승이 이리 힘들 줄이야

2년 전 10승 투수 5명…올해 윤성환 유일

‘5~2~1.’

올해까지 최근 3년간 삼성이 배출한 10승 투수의 숫자다. 144경기 체제가 3년째를 맞이하면서 10승 투수의 존재감은 더욱 커졌다. 이전 보다 늘어남 경기숫자로 인해 소화해야 하는 선발 등판 횟수가 많아지면서 팀 승리를 이끌어야 하는 경우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삼성은 2015년 10승 투수를 5명이나 배출하면서 여유롭게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했다. 윤성환(17승), 차우찬(13승), 알프레도 피가로(13승), 타일러 클로이드(11승), 장원삼(10승)으로 이어지는 5선발진이 모두 제 몫을 하며 5연속 정규시즌 우승의 대업을 완성했다. 높은 마운드의 힘으로 9개 팀을 압도하며 그 해 유일하게 6할 승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16년부터 급격하게 선발 마운드 높이가 낮아졌다. 새롭게 합류한 외국인 투수들이 하나 같이 부진한 모습을 보인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교체카드를 모두 사용하며 4명의 외국인투수를 영입했지만 이들이 합작한 승수는 단 6승이었다. 차우찬(12승)과 윤성환(11승)이 견재했지만, 둘만으로는 추락을 막기 어려웠다. 결국 9위라는 초라한 성적으로 시즌을 마감하며 7년 만에 가을야구 진출에 실패했다. ‘절치부심’으로 시작한 2017년에도 10승 투수 구인난은 계속됐다. 차우찬이 프리에이전트(FA) 권리를 행사하며 LG로 이적하면서 확실



삼성 윤성환

한 선발카드가 윤성환 밖에 남아 있지 않았다. 새로운 외국인투수들을 찾고 끝에 데려왔지만 부상과 부진의 연속으로 또다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FA로 데려온 우규민(6승)도 역시 마찬가지. 올 시즌은 이제 7경기 밖에 남지 않았는데, 삼성의 10승 투수는 윤성환(11승)이 유일하다. 약제가 겹치면서 선발마운드가 무너지자 최악의 기록도 뒤따랐다. 삼성은 창단 이래 처음으로 시즌 80패를 기록했고, 역사상 최저승률도 본의 아니게 예상했다.

일찌감치 준비하게 된 내년시즌도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또다시 물음표 전력이 외국인투수 영입에 사활을 걸어야 하고, 시즌 내내 고민거리였던 5선발 후보를 다시 찾아야 한다. 조금씩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한 백정현(8승)과 아마추어 무대에서 좋은 모습을 보인 신인 최재홍(1차지명), 양창섭(2차 1라운드 전체 2순위)이 유력한 후보군이다.

장은성 기자 award@donga.com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